

2일 아침 6시, 속초시에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최세영씨(46)는 막 퍼지기 시작하는 햇살을 마주 보며 아직 찬바람이 부는 부둣가로 차를 몰았다. 생선 비린내가 물씬한 어관장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
 “보살님, 이 오징어 싱싱해요? 저 고등어는요?”
 “방금 바닷가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런 빛깔을 보면 아시잖아요?”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맞근대서 흥정을 하던 최씨는 가장 싱싱해 보이는 오징어 두 상자와 동태 두 상자를 사기로 했다. 4년째 최씨와 거래해 온 노보살도 여느때처럼 값을 후하게 깎아준다.
 승용차에 어물을 싣고 달려간 곳은 교동에 위치한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장수식당. 식당 주방에 있던 두 명의 직인과 3명의 봉사자들이 얼른 달려와 어물을 내린다.
 “최선생님 오늘도 감사해요. 아직 쌀쌀한 날씨인데, ‘쌀요, 날 하는 일인데요.’ 최씨가 장수식당에 한달에 두번 생선을 보

보문당 등 대형 서적도매상 잇단 부도 교계 출판사도 ‘태풍권’

불서 발간 급감... “출판 전문화-유통단일화 해야”

출판업계를 휩쓸고 있는 부도회오리가 교계 출판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2월말 국내 최대 서적도매상 보문당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계출판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곳만도 10여곳. M사 2억여원, D사 1억여원, B사 6천여만원 등 피해액만도 4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도매상 순위 2위인 송인서방 등 크고작은 도매상과 서점의 부도도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IMF한파로 인한 재정압박에 시달려온 교계 출판사들은 올해 출판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출판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 1·2월 두 달동안 출간된 책은 모두 20여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일부 출판사는 아예 출간계획을 무한정 보류키로 하는 등 부도여파는 점점 위용수위로 치달고 있다.

심지어 한 출판사의 경영책임자는 집까지 처분하며 부도 위기에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교계출판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올해말까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교계출판시장의 청산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불교출판계는 불황타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선 유통구조 단일화와 출판 전문화를 통한 구조적 해결책이다. 불서전문 유통구조가 단일화될 경우 판매망 확보와 운영비 절감으로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 또 출판전문화는 창설년 주부 등의 독자층과 경전소설 등 출판종류를 기술적으로 묶는 출판전문화 역시 경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사찰도서관의 확충과 중단의 지원도 절실하다. 사찰도서관의 경우 다양한 불서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 구매력을 높이고 포교에서도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대량구매 방법 등을 통한 각 종단차원의 지원도 출판사가 마음놓고 양서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책력을 갖는다.



산사에 핀 동백... “정토의 소식” IMF의 한파 속에서도 동백은 활짝피어 정토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눈물처럼 후두룩 지는 꽃” 동백꽃 숲을 거닐던 경제난에 억눌린 마음을 달래보자. 꽃 진 지리에서 피어 오르는 삶의 새희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전남 강진 백련사는 이달 중순, 전북고창 선운사는 4월 초에 동백이 만개할 전망이다. (강진·고영배 기자)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발자취

13~19일 자비의 거리탁발

한민족돕기 기금모금...실직자·복동포 고통분담

조계종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일환으로 개최하는 ‘제2회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탁발’이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을 비롯 전국교구본사및 주요사찰에서 병행된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를 주제로 펼쳐지는 자비의 탁발은 부처님 열반절인 13일 오후2시 서울 조계사에서 ‘탁발의 날 선포식’과 함께 시작된다.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원장 암도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등 중앙종무기관장과 종단 중진스님, 직할사찰 주지및 신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거리탁발은 선포식에 이어 조계사에서 탑골공원 구간에서 실시된다. 조계종은 모금되는 성금을 복년풍도 돕기와 깨달음의 사회화 기금으로 사용한다.

선학원 용운선원 탈원 조계종에 등록절차

선학원 소속 용운선원(주지 성호)이 최근 조계종에 사찰을 등록하기 위해 선학원 탈원공고를 냈다. 용운선원은 조계종이 선학원 소속 스님들에게 각종 규제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탈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원필림 23면)

시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관이 개관한 때인 5년전. 재정 부족으로 복지관의 부식이 부실한 것을 안타까워 하던중 10명의 실업자비회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 어관장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가능하면 새벽 첫 배에 실려오는 꺾꽂이 어물을 샀다. 생명이 넘치는 어물을 노인들에게 공양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장수식당을 찾는 노인들은 대부분 월 10~13만원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생활보호대상자다. IMF이후에는 찾는 노인이 30여명 늘어 120여명에 달한다. 영양상태가 부실한 노인들에게는 단백질이 필수적. 최씨는 성인병 예방을 위해 육류보다는 생선을 늘 준비해 왔다.

최씨가 이처럼 노인봉양에 정성을 기울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25년전 48세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살아계신 노모의 조건없는 사랑을 항상 가슴에 담고 살기 때문이다. “이곳 노인들은 대부분 볼바를 자식이나 친척이 없어요. 돈이 없어 병원을 찾지도 못하죠. 그분들의 자식 노릇 한다는 생각에 언제나 즐겁습니다.” (김재경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은 대지가 새롭게 깨어나는 봄의 길목 3월.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 스님의 오도현장이며 신라불교의 초전지인 선산 모래원·도리사, 용성스님 유물전이 열리는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대각사를 찾아가십시오. 이날 대각회에서는 참가자에게 용성스님의 대표저서 <각해일륜>을 법공양 합니다.

‘3월의 독립운동가 용성스님’ 발자취
 독립기념관 모래원 도리사 서울대각사

○출발: 3월 15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비: 3만5천원(점심제공·각해일륜 법공양)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협찬: 일약약품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북동포에 국수 보시합시다

본사는 날이 더 해가는 식량부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북동포를 돕기 위하여 ‘금강국수공장후원회’와 공동으로 후원금 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는 97년 12월 29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의 가국 ‘성불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년고찰 상불사(成佛寺)가 있는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금강국수공장’을 설립 했습니다.

국수공장은 3월말부터 가동되며 어린이와 학생 및 불교신도들에게 우선적으로 급식되고, 매일 20톤(약 5천달러)의 밀가루를 조분련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본사는 ‘금강국수공장후원회’와 함께 후원보시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조분련에 직접기탁할 것입니다.

정성어린 작은 보시는 평화통일의 디딤돌과 인간번영의 참보살행이 됩니다.

“금강국수공장” 운영에 동참하시어 큰 복을 짓고 무너지지 않는 공덕탑을 쌓으십시오.

현대불교신문사·금강국수공장후원회

■ 금강국수공장후원회 회원가입
 ◇후원회원: 매월 1천원 이상
 ◇일반회원: 매월 3천원 이상
 ◇운영회원: 매월 1만원 이상
 ※ 일시불 후원 보시금도 환영합니다.

■ 은행계좌 및 지로번호
 국민은행: 006-21-0808-274
 농협: 053-01-237065
 우체국: 010041-0302852
 지로번호: 7602812
 예금주: 금강국수
 ※ 거래 은행에 자동이체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 동참하신 분은 발간산 은혜사에서 기도 축원을 드립니다.
 ※ 수시로 후원금 모금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처: (02)735-5559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초일류 종합건설·효성건설

IMF시대에도 완벽한 佛事를 이루어 내는 기업 효성건설이 만드는 하나되는 세상

21세기 테크빌리지 세상

효성건설이 열어갑니다

사람, 자연, 기술이 하나되는 21세기 테크빌리지 세상
 효성건설이 열어가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빌라문화를 도입한 효성건설은 고객제일주의의 책임공공과 철저한 A/S로 고객 속의 건설 전문회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건설은 대형토목공사, 환경분야, SOC 사업 및 해외건설부문 등의 다각화로서 세계의 효성건설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연, 기술이 하나되는 21세기 테크빌리지 세상 -
 효성건설이 열어가겠습니다.

● 시공중인 대한불교조계종 한아름선원(안양본원) ●

효성중공업(주) 건설부문
 효성건설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0-6 YBM 청담빌딩 TEL. 02)515-1025